

2. 디지털이미징 분야

비즈니스 접근 지양하고 친근한 커뮤니티 선행돼야

인화 주문과 앨범 제공에 집중하는 비즈니스적 접근만으로는 디지털이미지 시장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이보다 사진 문화를 대중화하고, 소비자들이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글·박성주 부장/(주)아이시스 포토아이넷 사업부

작년 한 해는 닷컴 기업들이 오프라인 파트너와 손을 잡거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는 Click & Mortar 형태의 기업이 살아 남으리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었다. 이미 작년 말 초고속통신망 가입자수는 5백만을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인터넷 인프라는 구축된 셈이다.

디지털 이미지 시장을 평가하자면 '인터넷 마인드만으로는 제대로 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도 국내 디지털 이미지 시장은 초기 도입기라고 보아야 하지만,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던 초창기에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들은 사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벤치마킹 할 수 밖에 없었다.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표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 인화/출력 서비스는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많은 디지털 이미지 사이트들이 깊은 사진적 배경 없이 온라인 인화에 치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문화 대중화 먼저 돼야

디지털 이미지 사업 활성화의 관건은 디지털카메라와 인터넷 사용환경에 달려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데이터 퀘스트는 2005년까지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이 작년 판매 대수의 6배에 달하는 4천 2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PC 보급 현황을 보더라도 국민 누구나 한 대쯤 보유하게 되었고 인터넷 환경도 어느정도 갖추었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작년 한해 국내 판매대수는 5만여 대에 불과해 총 보급 대수는 약 30여만대로 추정된다.

미국이 6백만대를 넘어서고 일본이 하반기에 이미 디지털 카메라 판매가 규모면에서 필름카메라를 앞지른 것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은 아직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를 앞질러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로 인해 사진이 대중화의 좋은 조건인 인터넷으로의 전이가 균형을 맞추지 못해 '절름발이식의 결과'를 초래했다. 단순히 사진을 촬영해서 인화해보고 보관하는 프로세스로 진정한 사진 대중화를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사진이라고 하면 특화된 분야로 인식돼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사진 대중화란 의미에서 본다면, '사진'이라는 단어에 접근하기 쉽도록 마음의 준비를 바꾸어 놓을 정도의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사진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며, S/W 및 H/W기술력과 노하우의 축적을 바탕으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실행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가구를 살 때 온라인에서 가구 사이트를 오픈하더라도 실 구매는 제품을 직접 보고 난 후에 결정하고 지불 또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가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고, 인터넷에도 아마추어적 지식정도는 쌓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진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적 접근이 우선되고 친근한 커뮤니티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는 '수익모델'이라는 비즈니스적 접근으로 인화 주문과 앨범 제공에 집중하다 보니 콘텐츠나 커뮤니티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고 출력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카드로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자주 할 수 있지만 매일 하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보다 오래 자주 사이트에 접속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사진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이라는 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필요에 의해 고객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실구매로 이어져 매출을 가져올 것이다.